

# 폐교부지 활용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임실군, 2025년 10월 준공 목표 47억원 투입 임시거주시설 조성

임실군이 폐교부지를 활용한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군에 따르면 귀농·귀촌 임시 거주 시설은 오수면 봉천리 봉천초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총 사업비 47억원(군비 2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이 시설에는 거주 및 관리시설 10동과 실습농장 및 부대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사업은 올해 12월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지임으로 활력 넘치는 군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이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거주 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농촌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2025년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이달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사업은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



임실군이 폐교부지를 활용한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설 지원과 주택 구입·신축 및 수리 지원 등 4가지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임실군에 전입한 날부터 최대 5년 이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귀농·귀촌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경제작물, 임산물 등 소득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구입과 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은 귀촌 거주 안정을 위하여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착지원금, 귀농·귀촌 교육 훈련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

하여 지원한다. 군은 사업의 적기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12월까지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 하겠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가장 많은 찾는 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남원시, 농업인 대상 수여·농산물 판매장터 등 진행

남원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성철)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사람의 광장에서 제29회 남원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평소 우리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장터마당을 열어 남원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 행사는 예년과 달리 한해 풍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남원시 직단에서 추(秋)제로 시작, 농업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남원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장터 및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마당, 기념행사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농산물 장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최고품질의 농산물로, 지역경제 및 지역 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금액의 약 30%정도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 할인했다.

이밖에도 농업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남원농산물로 준비한 1,000인의 밥상은 맛 좋은 남원의 밥상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로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로 남원 만들기 에 적극 기여한 공로로 식량작물부문에서 송동면 김희식씨, 원예부문에 주



천면 임한수씨, 축산부문에 송동면 이우취씨, 농촌관광부문에 덕곡면 소영호씨가 남원시 농업인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남원시의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농촌지도자 직전회장 박준호, 4H본부 직전 회장 배종민, 축산단체협의회 전회장 한병권, 농업기술센터 인월임대사업소, 원예산업과 임희희, 남원농협 신나라남이 농업인 단체로부터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았으며, 농업인 자녀로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6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이와 함께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유기농 백미 10kg 50포대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남원시에 전달했다.

최경식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을 하시는 농업인들 덕분에 남원의 농업·농촌 발전이 기대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제값 받아 농민이 잘사는 스마트한 미래 농생명산업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남원시가 더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최우수'

### 남원시, 도내 유일 선정

남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북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최우수(A)등급을 받아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건물 등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연료비를 절감

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환경친화적 사업이며, 남원시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 4월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6월 공모에 신청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개·심층·총괄평가를 거쳐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남원시는 내년도에 이번 공모로 확보한 국비를 포함 총 28억원을 투입하여 주생, 금지, 대강 3개면 일원

302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 공모사업부터 3년 연속 선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775가구 4,013kW 규모를 설치하여 요금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고, 이중 일반주택 3kW 태양광발전시설은 가정 전기 사용량에 따라 월 4~5만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군수 표창 수여·강연·장기자랑 등 진행

순창군이 11일 향토회관과 일품공원 일원에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위원장 윤영길)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관내 농업인 900여 명과 함께 열기남 순창부군수, 손종서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군은 농업인들의 활력 증진을 위해 웃음치료 전문강사를 초빙, 특별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1부 기념식에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각 읍면을 대표하는 농민과 농업 직원 등 총 16명에게 순창군

수 표창패가 수여됐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읍면별 장기자랑과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한 해 동안 구슬땀을 흘린 농업인들이 하나 돼 즐기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윤영길 추진위원장은 "쌀값 폭락, 버팀구 피해, 이상기후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의 식탁이 더욱 풍성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순창 농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기남 순창부군수는 축사에서 "29 회제를 맞아 농업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비전 아래,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조형수 감독과 함께 하는 적성면 유도교실 열려

순창군의 자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조형수 감독이 이끄는 적성면 유도교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적성면 유도교실은 조형수 감독의 지도 아래 적성초등학교와 중학생 총 13명이 참여, 수업은 적성면 문화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매주 2회 진행된다.

학생들은 기초 체력 향상과 함께, 다양한 유도 기술을 하나씩 익히며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성장을 보며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도교실을 이끄는 조형수 감독은 순창군 출신의 유도 스타로, 그는 1985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고베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유도계의 전설이다.

조형수 감독은 "유도를 통해 아이들이 강한 체력과 바른 인성을 함께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순창군 적성면에서 제가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 검사 운영

임실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측정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3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260cc 이하) 22대 등 총 25대이다.

검사 기간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진행되며, 군은 관촌면사무소, 오수면사무소, 강진면사무소, 군민회관 주차장에서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 일정은 △12일 오전 관촌면사무소 주차장, 오후 임실군민회관 주차장 △13일 오전 오수면사무소 주차장, 오후 강진면사무소 주차장이다.

운영시간은 오전은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3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필요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 등과 검사 수수료 1만5000원을 준비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개최

남원시는 지난 9일 예촌에서 남원시 가족센터가 주관,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2024년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을 다국적 400여 명과 지역 주민이 참석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교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부 공동육아 나눔터 자녀돌봄 풀이 성과발표회와 2부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및 다문화 체험 공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부에서는 공동육아를 하는 가구들이 서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닦은 솜씨를 뽐내며 아이들과 함께한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장기자랑과 다문화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체험공간을 운영하여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올해는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3·4형시 공모전 전시회, 다문화 문



인화 작품 전시회도 볼거리로 제공하여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남원시민에게 다양한 방식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